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2021. 05.



KBIZ 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목 차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1
4. 응답자 현황	2

2 조사 결과

1. 코로나 이전 대비 현 기업의 경영상황	3
2.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경험 유무	4
3.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휴직·퇴사 근로자 유무	5
4. 정상적 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유무	6
5. 경영·고용상황 회복 소요시간	7
6. 현 경영상황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8
7. 전년 대비, 2021년 근로자 임금 인상률	9
8. 감내할 수 있는 내년(2022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10
9.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	11
10. 주휴수당으로 인한 임금 인상 및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 정도	12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애로 및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정부지원 및 최저 임금 결정 대응 건의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임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및 이메일/FAX조사 병행
■ 표본 수	600개 사 (제조업 300개 사, 비제조업 300개 사)
■ 조사기간	2021. 05. 10. ~ 2021. 05. 18. (약 7일)

3. 조사 내용

내 용
기업의 경영상황
기업의 고용상황
기업의 임금지불 관련 애로사항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근로자 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의 변동 의견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
임금 인상 및 추가 고용 등에 대한 부담 정도

4. 응답자 현황

구 분		사례수	비중 (%)
전 체		(600)	100.0
소재지	수도권	(272)	45.3
	비수도권	(328)	54.7
주업종	제조업	(300)	50.0
	비제조업	(300)	50.0
종사자 수	1~9인	(180)	30.0
	10~29인	(180)	30.0
	30~99인	(120)	20.0
	100~300인	(12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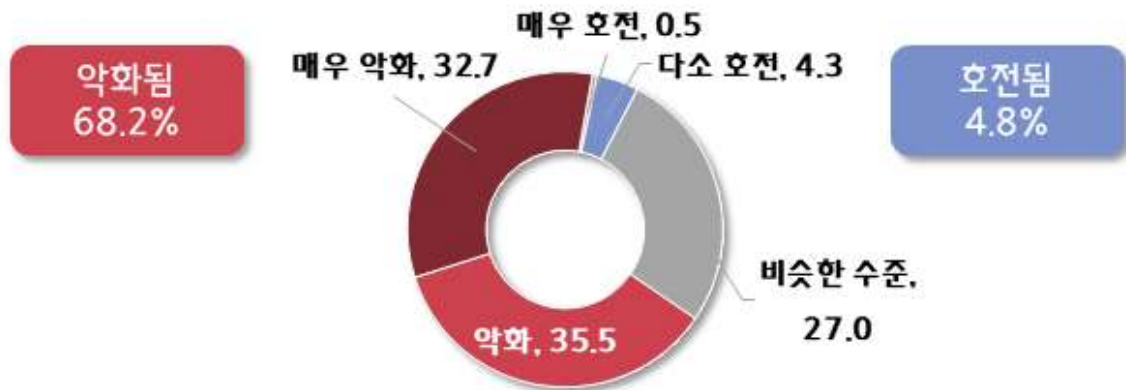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1. 코로나 이전 대비 현 기업의 경영상황

- 코로나 이전 대비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①매우 악화+②악화]’라고 응답한 기업은 68.2%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제조업은 75.6%로 제조업(60.7%)보다 15.0%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1~9인, 79.4%)’의 응답이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그림 1> 코로나 이전 대비 현 기업의 경영상황

(단위 : %)



<표 1> 코로나 이전 대비 현 기업의 경영상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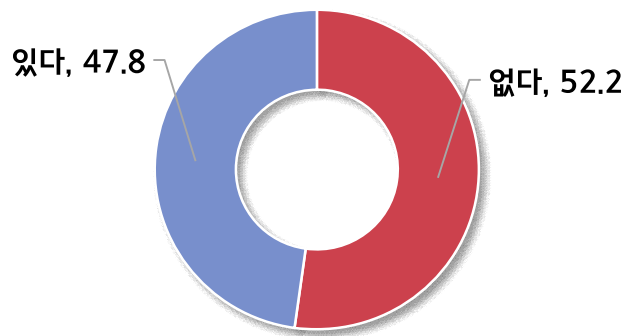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매우 악화	악화	비슷한 수준	다소 호전	매우 호전	악화됨	호전됨
전 체	(600)	32.7	35.5	27.0	4.3	0.5	68.2	4.8
주업종	제조업 (300)	20.0	40.7	33.3	5.3	0.7	60.7	6.0
	비제조업 (300)	45.3	30.3	20.7	3.3	0.4	75.7	3.7
종사자 수	1~9인 (180)	42.7	36.7	19.4	0.6	0.6	79.4	1.2
	10~29인 (180)	33.9	37.7	23.9	3.9	0.6	71.6	4.5
	30~99인 (120)	31.7	34.2	28.3	5.8	0.0	65.9	5.8
	100~300인 (120)	16.7	31.7	41.6	9.2	0.8	48.4	10.0

2.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경험 유무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47.8%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제조업의 48.7%가 ‘대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47.0%)보다 1.7%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별로는 ‘10~29인’ 기업의 56.1%가 ‘대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기업보다 5.0~22.8%p 높은 수치임

〈그림 2〉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경험 유무

(단위 : %)



〈표 2〉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경험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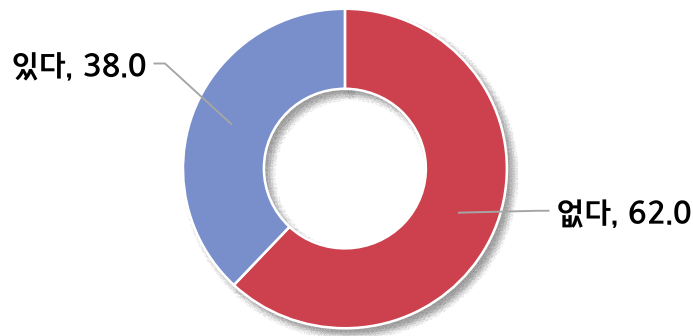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600)	47.8	52.2
주업종	제조업	(300)	48.7	51.3
	비제조업	(300)	47.0	53.0
종사자 수	1~9인	(180)	51.1	48.9
	10~29인	(180)	56.1	43.9
	30~99인	(120)	45.0	55.0
	100~300인	(120)	33.3	66.7

3.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휴직·퇴사 근로자 유무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휴직·퇴사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38.0%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43.3%가 ‘휴업·휴직·퇴사 근로자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32.7%)보다 10.6%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별로는 ‘30~99인’기업의 43.3%가 ‘휴업·휴직·퇴사 근로자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기업보다 2.2~11.6%p 높은 수치임

〈그림 3〉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휴직·퇴사 근로자 유무

(단위 : %)



〈표 3〉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휴직·퇴사 근로자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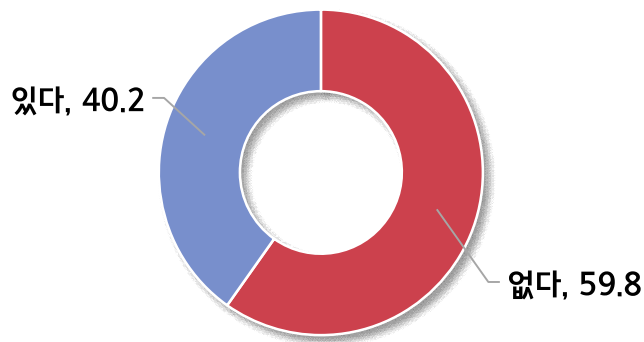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600)	38.0	62.0
주업종	제조업	(300)	32.7	67.3
	비제조업	(300)	43.3	56.7
종사자 수	1~9인	(180)	41.1	58.9
	10~29인	(180)	35.6	64.4
	30~99인	(120)	43.3	56.7
	100~300인	(120)	31.7	68.3

4. 정상적 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유무

- ‘정상적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40.2%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48.3%가 ‘정상적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32.0%)보다 16.3%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정상적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1~9인, 55.6%)’의 응답이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그림 4〉 정상적 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유무

(단위 : %)



〈표 4〉 정상적 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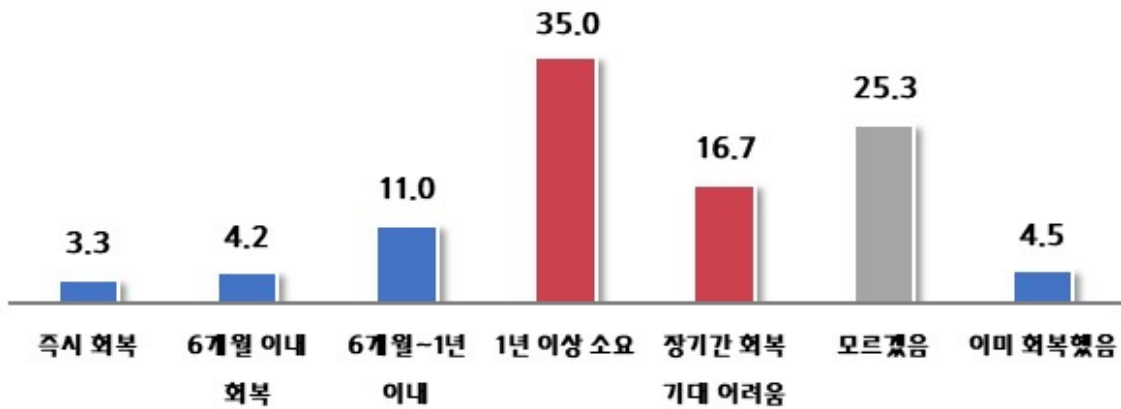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600)	40.2	59.8
주업종	제조업	(300)	32.0	68.0
	비제조업	(300)	48.3	51.7
종사자 수	1~9인	(180)	55.6	44.4
	10~29인	(180)	42.2	57.8
	30~99인	(120)	31.7	68.3
	100~300인	(120)	22.5	77.5

5. 경영·고용상황 회복 소요시간

- 기업들의 경영·고용상황이 회복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1년 이상 소요’가 35.0%, ‘장기간 회복 기대 어려움(16.3%)’, ‘6개월~1년 이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모르겠음’은 25.3%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36.3%가 ‘1년 이상 소요’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33.7%)보다 2.6%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장기간 회복 기대 어려움(1~9인, 22.8%)’의 응답이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그림 5> 경영·고용상황 회복 소요시간

(단위 : %)



<표 5> 경영·고용상황 회복 소요시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즉시 회복	6개월 이내 회복	6개월 ~ 1년 이내	1년 이상 소요	장기간 회복 기대 어려움	모르겠음	이미 회복했음	
전 체	(600)	3.3	4.2	11.0	35.0	16.7	25.3	4.5	
주업종	제조업	(300)	5.0	4.7	12.3	33.7	11.0	30.0	3.3
	비제조업	(300)	1.7	3.7	9.7	36.2	22.3	20.7	5.7
종사자 수	1~9인	(180)	1.1	3.3	10.0	41.1	22.8	20.6	1.1
	10~29인	(180)	1.2	4.4	7.8	37.8	17.2	28.3	3.3
	30~99인	(120)	4.3	5.8	15.8	28.3	15.0	25.8	5.0
	100~300인	(120)	9.2	3.4	12.5	28.3	8.3	27.5	10.8

6. 현 경영상황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 현 경영상황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①매우 높음+②높음]’라고 응답한 기업은 35.3%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6.0%에 불과함
- 주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39.0%가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31.7%)보다 7.3%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1~9인, 42.2%)’의 응답이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그림 6> 현 경영상황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



<표 6> 현 경영상황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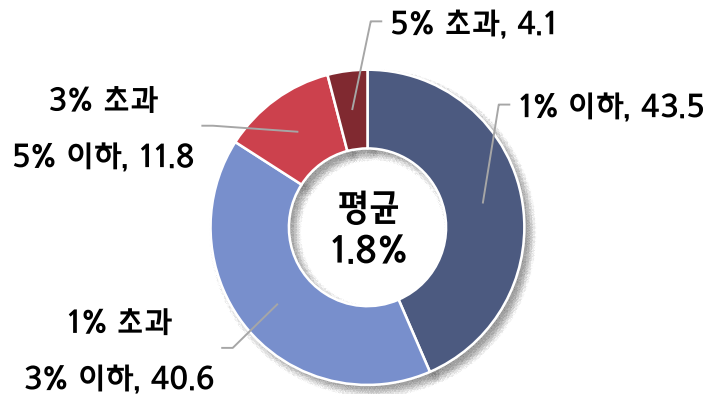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높음	낮음	
전 체	(600)	8.0	27.3	58.7	5.7	0.3	35.3	6.0	
주업종	제조업	(300)	7.3	24.3	60.3	7.7	0.4	31.7	8.0
	비제조업	(300)	8.7	30.3	57.0	3.7	0.3	39.0	4.0
종사자 수	1~9인	(180)	11.1	31.1	49.4	8.3	0.1	42.2	8.4
	10~29인	(180)	6.1	29.4	56.7	7.2	0.6	35.5	7.8
	30~99인	(120)	8.3	24.2	65.0	2.5	0.0	32.5	2.5
	100~300인	(120)	5.8	21.7	69.2	2.5	0.8	27.5	3.3

7. 전년 대비, 2021년 근로자 임금 인상률

- 전년 대비,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8%로 나타남
 - 근로자 임금 인상률은 ‘1% 이하(43.5%)’, ‘1% 초과 3% 이하(40.6%)’, ‘3% 초과 5% 이하(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2.2%로 비제조업(1.4%)보다 0.8%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평균 임금 인상률(100~300인, 2.6%)’이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그림 7〉 전년 대비, 근로자 임금 인상률

(단위 : %)



〈표 7〉 전년 대비, 근로자 임금 인상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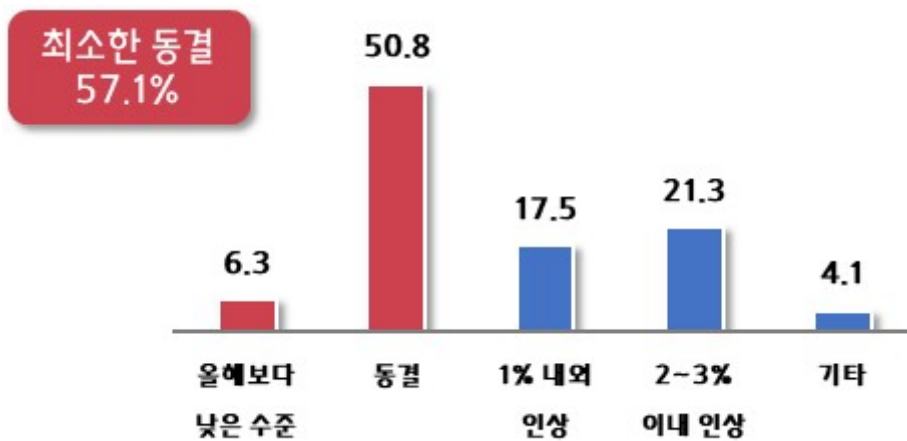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1% 이하	1%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평균 인상률	
전 체	(600)	43.5	40.6	11.8	4.1	1.8	
주업종	제조업	(300)	39.0	39.0	16.3	5.7	2.2
	비제조업	(300)	48.0	42.4	7.4	2.2	1.4
종사자 수	1~9인	(180)	58.8	28.8	7.3	5.1	1.3
	10~29인	(180)	46.0	40.0	11.1	2.9	1.6
	30~99인	(120)	41.6	41.6	11.7	5.1	1.9
	100~300인	(120)	18.3	58.4	20.0	3.3	2.6

8. 감내할 수 있는 내년(2022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으로 '동결'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 이내 인상(21.2%)', '1% 내외 인상(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52.0%가 '동결'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49.6%)보다 2.4%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동결(1~9인, 63.2%)'의 응답이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그림 8>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단위 : %)



<표 8>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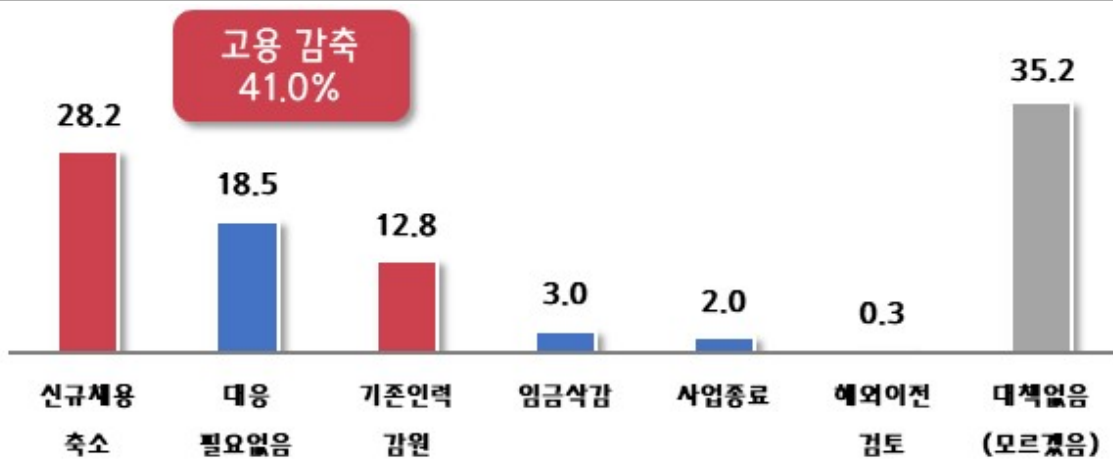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올해보다 낮은 수준	동결	1% 내외 인상	2~3% 이내 인상	기타 (n% 인상)	
전 체	(600)	6.3	50.8	17.5	21.3	4.1	
주업종	제조업	(300)	5.3	49.6	19.7	20.7	4.7
	비제조업	(300)	7.3	52.0	15.3	21.7	3.7
종사자 수	1~9인	(180)	8.9	63.2	10.6	15.6	1.7
	10~29인	(180)	5.0	48.9	20.6	19.4	6.1
	30~99인	(120)	8.3	45.8	20.8	21.7	3.4
	100~300인	(120)	2.5	40.0	20.0	31.7	5.8

9.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 ‘고용감축’이 41.0%로 나타남
 - ‘신규채용 축소(28.2%)’, ‘기존인력 감원(12.8%)’, ‘대책없음(모르겠음)’은 35.2%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0.3%가 ‘대응 필요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16.7%)보다 3.6%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별로는 ‘30~99인’ 기업의 39.1%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기업보다 11.3~15.8%p 높은 수치임

〈그림 9〉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

(단위 : %)



〈표 9〉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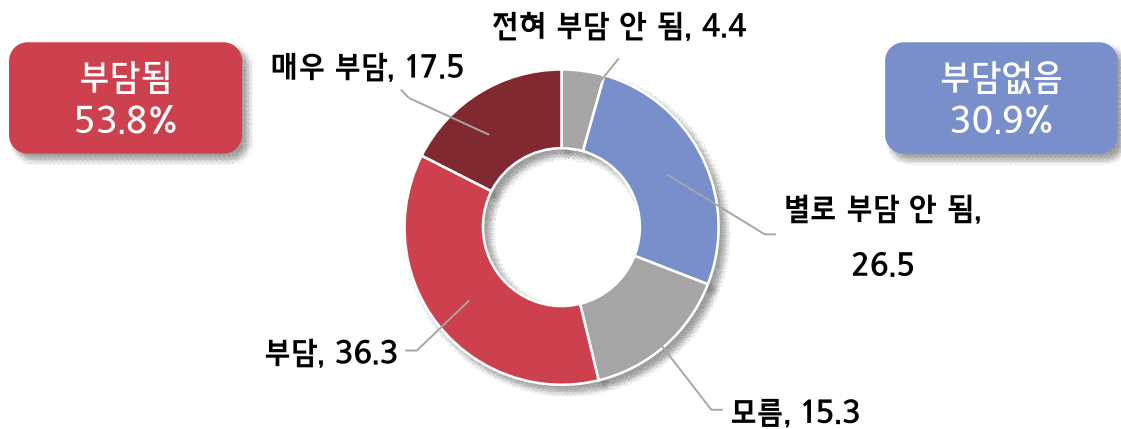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신규채용 축소	대응 필요없음	기존인력 감원	임금삭감	사업종료	해외이전 검토	대책없음 (모르겠음)	
전체	(600)	28.2	18.5	12.8	3.0	2.0	0.3	35.2	
주업종	제조업	(300)	28.0	20.3	12.7	2.0	1.0	0.3	35.7
	비제조업	(300)	28.3	16.7	13.0	4.0	3.0	0.3	34.7
종사자 수	1~9인	(180)	23.3	7.8	17.2	3.3	5.6	0.6	42.2
	10~29인	(180)	27.8	19.4	12.8	2.2	0.6	0.0	37.2
	30~99인	(120)	39.1	19.2	11.7	1.7	0.8	0.0	27.5
	100~300인	(120)	25.0	32.5	7.5	5.0	0.0	0.8	29.2

10. 주휴수당으로 인한 임금 인상 및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 정도

- 주휴수당으로 인한 ‘임금 인상 및 추가 고용에 부담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로 나타났으며, ‘부담이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0.9%로 나타남
- 주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58.6%가 ‘부담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49.0%)보다 9.6%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별로는 ‘1~9’인 기업의 62.8%가 ‘부담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기업보다 4.5~21.1%p 높은 수치임

〈그림 10〉 주휴수당으로 인한 임금 인상 및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 %)



〈표 10〉 주휴수당으로 인한 임금 인상 및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매우 부담	부담	모름	별로 부담 안 됨	전혀 부담 안 됨	부담됨	부담 없음	
전 체	(600)	17.5	36.3	15.3	26.5	4.4	53.8	30.9	
주업종	제조업	(300)	13.3	35.7	16.0	29.0	6.0	49.0	35.0
	비제조업	(300)	21.7	36.9	14.7	24.0	2.7	58.6	26.7
종사자 수	1~9인	(180)	22.8	40.0	15.0	19.4	2.8	62.8	22.2
	10~29인	(180)	21.1	28.9	18.3	27.8	3.9	50.0	31.7
	30~99인	(120)	15.8	42.5	15.8	23.3	2.6	58.3	25.9
	100~300인	(120)	5.9	35.8	10.8	38.3	9.2	41.7	47.5